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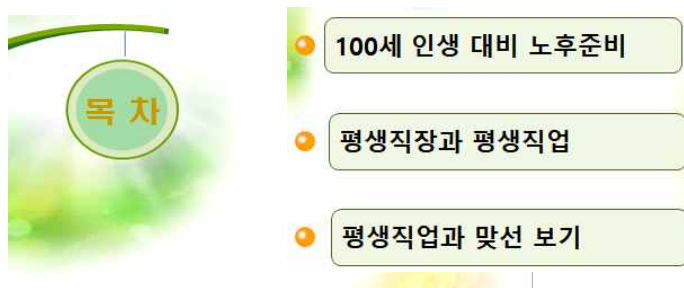
100세 인생 꽃중년으로 가꾸는 평생직업

신종 ‘코로나’로 온 세상이 공포의 도가니에 잠겼습니다. 마스크 대란도 일어나고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기승을 부렸던 많은 바이러스성 역병들이 그랬듯이 봄과 함께 지금의 코로나도 조만간 스러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를 살면서 ‘꽃중년으로 가꾸는 평생직업’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1.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2.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며
3. **평생직업을 위한 경력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 순서]



1. 100세 인생 대비 노후준비

장수! 장수는 단명보다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장수는 축복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흔히들 노후준비 필수요소로 다음 6가지를 말합니다.

- | | | | | | |
|------|-----|-----|------|--------|------|
| ① 건강 | ② 돈 | ③ 일 | ④ 여가 | ⑤ 대인관계 | ⑥ 주거 |
|------|-----|-----|------|--------|------|

이들 요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중 ‘일’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직업’ 또는 ‘의무’라고도 하는데 포괄적으로는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활동’은 일상에서 행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의미 있고 책임감과 성취감이 따르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이 없다면 등대도 나침반도 목적항(目的港)도 없는 삶, 그야말로 망망대해(茫茫大海) 부평초 같은 삶이 되겠지요.

언젠가 노인대학에 강의를 가서 제가 평소 친숙하다고 생각한 한 어르신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 공무원연금도 받고 건강하셔서 누가 봐도 남 부럽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에 특별한 뜻 없이 한 인사치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의 대꾸는 예상외였습니다. “보면 몰라요? 죽지 못해 사는데!” 배우러 다니고 이것저것 소일거리를 찾는다니만 딱히 이거다 할 게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나고 한 얘기 또 하고 새로울 게 없는 지루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6~70세에 보너스로 몇 년 더 살다가 저승사자 손잡고 가면 되는 노후였지만, 100세 시대 노후에는 널널한 시간들을 채울 삶의 모습이 없으면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2. 평생직장과 평생직업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흔히들 ‘평생직장’을 두고 부러움 반 조롱 반 섞인 말로서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평생직장’도 ‘평생고용’의 가치를 앞세운 어느 한때의 사회현상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업시대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직업세계의 변화는 ‘평생직장’이란 사회문화를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직업’이 대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평생직업’도 로봇의 일상화가 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1인기업’ 등으로 다변화해야만 긴 노후를 채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직업세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림 <직업세계의 변화>

과거엔 한 직장 내에서 입사 후 세월과 함께 상위 직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그에 따른 연공서열이 당연히 되는 직장 문화가 대세였습니다. 오늘날엔 ‘평생직업’과 함께 이직·전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3. ‘평생직업’과 맞선 보기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그 직업에 대한 여러분이 부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나요?

그림
<직업가치관>



여기 세 사람의 벽돌공이 땀별 아래서 벽돌을 쌓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림
<첫 번째>



첫 번째 벽돌공이 말합니다.
“보면 몰라요?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단순한 행위의 의미)

그림
<두 번째>



두 번째 벽돌공이 말합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소득을 생각하는 경제적 의미)

그림
<세 번째>



세 번째 벽돌공이 말합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자아실현, 소명의식이 담긴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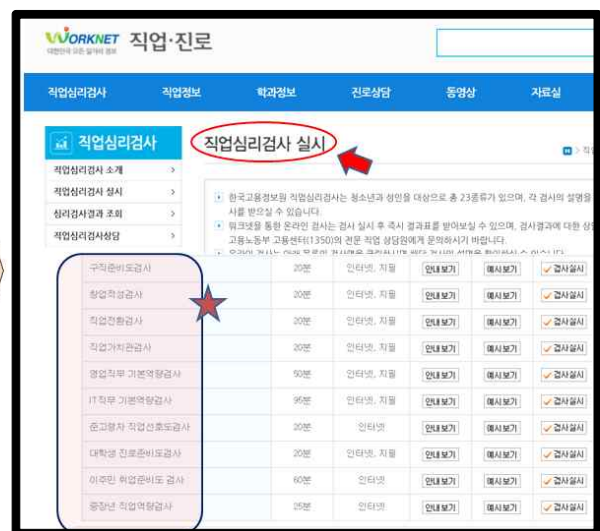
일에 대한 몰입(沒入)의 정도는 그 사람의 기본적 인성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직업 가치관’입니다. 위의 사례는 벽돌 쌓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각 벽돌공들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벽돌을 쌓는데 고통이 따르는 중노동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름 벽돌 쌓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업’의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떨습니까?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 일조를 한다는 보람과 소명의식을 벽돌 쌓는 행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듯이 직업도 선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는 배우자를 고르듯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되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하면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가치관과 조화가 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였다면 그 직업에 만족과 보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직업과 나와의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업과 나와의 궁합은 어떻게 알아 봐야 할까요?

우선, ‘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적성은? 경력은? 직업가치관은? 역량은? 전문성은? 이런 것들이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얼 잘 하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직업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www.work.go.kr/)입니다. ‘직업선호도검사’ 등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 12종이 있는데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 그림처럼 순서대로 붉은 색 원의 ‘직업진로’와 ‘직업심리검사 실시’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1. 워크넷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직업진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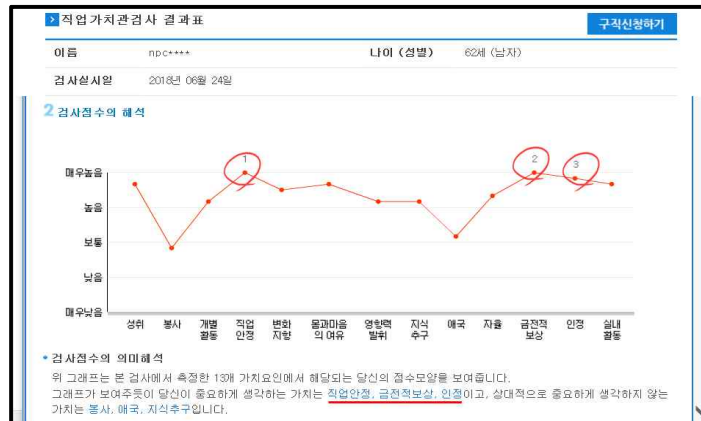
<2. ‘직업심리검사실시’ 클릭 후 ★ ‘내 검사 선택’>

이 검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인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진로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서비스로서 무료입니다. 검사 소요시간이 짧은 20분 짜리에서, 긴 90분짜리 까지 있고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 채점이 됩니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필요시는 전문가의 상담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필자의 ‘워크넷’ 직업선호도 검사 사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 같은 검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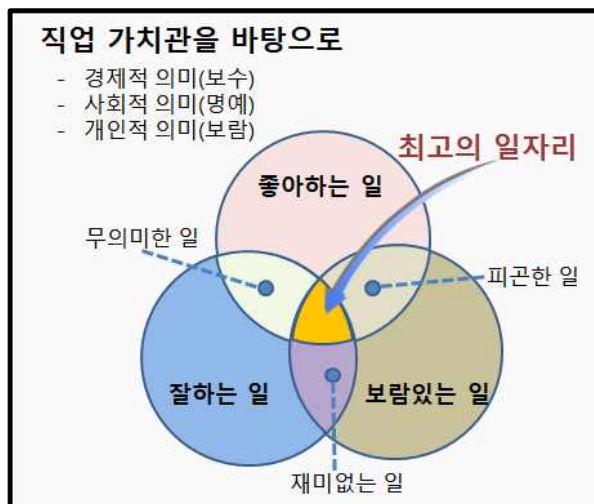


그림(필자의 흥미분야 사회성>



그림<필자의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

100세 인생! 평생직업! 나와 궁합이 맞는 직업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림<최적의 직업선택>

먼저 앞서 행한 심리검사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직업가치관을 먼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옆의 그림과 같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보람 있는 일’들의 공통 집합을 수렴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가며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면서 왜 노후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의 의미와 함께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을 구별하며 산업사회의 변천에 따른 추세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폈습니다. 아울러, 100세 까지 함께 할 평생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자신의 직업가치관을 바탕으로 ‘최적의 직업선택’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평생직업’과 함께 100년 해로하실 것을 응원하며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